

“퇴근길 바흐 곡 들으며 위안 받길”



‘지하철 안의 바흐’ 참여하는 첼리스트 김기웅

**2010년 바흐의 생일날 뉴욕 지하철서 시작
올해 세계 150개 도시 240명 연주자 참여
21일 광주 상무역 ‘무반주 첼로모음곡’ 연주**

오는 21일은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333번째 생일이다. 흔히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는 피아니스트들에게 ‘구약성서’로 불리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비롯해 ‘무반주 첼로모음곡’, ‘브란덴부르크협주곡’ 등 수많은 음악으로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1일 흑시 광주 지하철 상무역사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첼로 소리에 발길을 멈출지도 모르겠다.

‘지하철 안의 바흐’(Bach in the Subways) 행사가 광주에서도 열린다. 이 기획은 뉴욕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의 지하철,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바흐 탄생을 기념하는 음악가들의 자선 공연이다. 지난 2010년 미국의 첼리스트 데일 헨더슨이 뉴욕 지하철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을 연주하며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번졌고 올해는 40개국 150개 도시에서 240명의 음악가가 함께한다.

광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일하게 첼리스트 김기웅씨가 참여한다. 광주 지하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에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광주 상무역(오후 5시30분)으로 장소를 옮겨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바흐의 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예요. 프로 연주자든 아마추어 연주자든



지난해 바흐의 생일(3월21일) 광주 지하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에서 연주하는 첼리스트 김기웅씨.

상관 없이 미국 바흐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허락을 받으면 ‘지하철 안의 바흐’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연할 수 있어요.”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를 거쳐 첼리스트 양성원을 사사한 김 씨는 독일 뒤셀도르프 음악대학에서 유학 중 만난 피아노학과 한 네트 바이첼트 교수의 제안으로 지난해 첫 연주회를 가졌다.

“사실, 이런 행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교수님이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는 연주를 하는데 네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첫 연주회 때 관객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협회에서 연락이 와 올해도 연주회를 할 거냐는 문의가 왔고 가까이 하자고 했죠.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연주자가 힘들이는 하지만 지하철 공간이 울림이 좋아서 들으시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무심코 지하철 역사를 찾은 시민들 가운데는 아예 바닥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맛있다”는 말도 해주는 등 즐거워했다. 올해 연주는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5시30분 시작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흐의 곡과 함께 첼로 음색과 잘 어울리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도 함께 연주한다.

“남편과 고전 음악 작곡가와 달리 바흐의 곡은 연주할 때 마다, 연습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게 매력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첼로 음악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위안 받으시고,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오는 10월 한네트 바이첼트와 함께 화염사 등 전남 지역 사찰에서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씨는 나투어 뮤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순천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허달용·김희상·조정태·임남진 4인전

2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28일부터 서울 G&J 갤러리서 개인전

가냘픈 초승달과 붉은 노을 아래 저만치, 집에 돌아가기 싫은 황소를 끌어당기는 부자의 어렴풋한 실루엣이 보인다.(허달용 작 ‘붉은 하늘’) 전시장 한쪽엔 점토로 빚어낸 인물상이 배치돼 있다. 손을 번쩍 든 사람, 골똘히 생각에 빠진 사람, 박장대소 웃는 사람 등 각각각색의 표정과 동작에 눈길이 머문다.(김희상 작 ‘사람꽃-희로애락’)

또 다른 벽면을 채운 임남진의 작품은 소소한 일상을 그너 특유의 채색화로 풀어낸 인상적이다. 푸른색 화면에 어렴풋이 떠오른 달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레지던스에 참여했던 조정태 작가는 진시황릉에 함께 묻혔던 도용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을 내 걸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푸른 색감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검은 바다’도 인상적이다.

허달용, 김희상, 조정태, 임남진 작가가 만났다. 오는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4인4색 동행’을 통해서다. 광주 전시 후에는 곧바로 서울에서 각각 개인전도 갖는다.

네 사람은 나이도 학교도 작품 스타일도 다르지만 민중 미술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각자만의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지금도 사회와 삶에 대해 일관되게 고민하고 작품을 발표해 온다는 점에서 든든한 길동무임에 틀림없다.

팸플릿에 글을 쓴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들에 대해 “민중미술이 요구했던 민족의 문제,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 민중의 현실 삶과 역사 등을 인식하고 그 리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기 그림에 대한 생각도 색깔도 4색”이라며 “함께했



김희상 작 ‘사람꽃-희로애락’



허달용 작 ‘붉은 하늘’

던 많은 동료들이 미술운동이나 민주운동의 현장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4인은 그 갈등을 다지며 자기 작업의 소신을 세우고, 광주의 작가로 어엿하게 등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4명의 작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 인사동에 공동 개관한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개인전을 갖는다. 각자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오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임남진 작가전을 시작으로 조정태(4월4일~10일), 김희상(4월11일~17일), 허달용(4월14일~24일) 작가의 전시가 이어진다. 서울 오픈행사는 28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가게 광주용봉점 ‘책방음악회’

내일 시낭송·소리꾼 박임자·첼리스트 박효은 공연

아름다운 가게 현책방 광주용봉점(사진)이 오는 17일 오후 4시 올해 첫 책방음악회를 개최한다. 현책방은 지난 2016년부터 매달 한차례씩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어왔다.

3월 행사 주제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다. 이상철씨의 시낭송으로 시작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박오현씨가 그림책 ‘모르는 척 공주’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소리꾼 박임자의 ‘춘향가’ 중 ‘쑥대머리’, 첼리스트 박효은의 ‘사랑의 인사’와 ‘자클린의 눈물’ 연주가 이어진다. 또 바리톤 최교성이 ‘나와 함께 돌아’, ‘첫 사랑’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박성경은 ‘잘 될 거야’, ‘잠미’ 등을 부른다. 마지막 무대는 두 사람이 이중창으로 부르는 ‘개똥벌레’다. 예술감독과 피아노 연주는 김현옥 작곡가가 맡았다.

한편 현책방 광주용봉점 운영자문위원회와 달빛 오디세이가 함께 진행했던 음악회에 올해부터 봉사단체 (사)세상을 이어가는 끈(이하 세끈·이사장 김성철)이 함께한다.

지난 2012년 결성된 세끈은 의료인과 예술인, 직장인 등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꾸린 모임으로 지구촌 곳곳과 광주시민들



의 마음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라오스 비비엥 파평마을, 미얀마 양곤 등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음악회에서는 세끈의 해외 활동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흥겨운 춤사위와 사물놀이를 스트레스 날려보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7일 ‘전통무용 풍물’ 무대

18일 공예놀이 체험 마당

주말 완연한 봄 날씨 속에 흥겨운 춤사위와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7일 오후 3시 토요일 공연으로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를 초청해 ‘전통무용과 풍물의 공존’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는 삼도(충청·호남·영남지역)의 농악가락을 새롭게 엮은 신명난 ‘삼도 사물놀이’로 막을 열고 우리지역 대표



‘진도북춤’으로 즉흥성과 신명을 더한다. 다음으로 꿩다리 연주자의 개인 놀이인 ‘부포놀이’, 자유로운 춤사위인 ‘살풀이춤’, ‘장구춤과 설장구’가 이어지며 끝으로 모듬북 ‘공존’ 공연으로 마무리한

다. 문의 062-232-1595. 오는 18일에는 공예놀이 체험과 무등현대미술관 초청 이야기마당을 연다. ‘열시구~ 경칩일세’의 셋째 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요상설공연은 오후 2시 숲을대문에서 개구리 인형을 꾸미는 공예놀이 체험(사진)으로 시작한다. 오후 3시부터 서석당에서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날 무대는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 관장과 광규호 전통문화관 기획운영팀장이 1부 ‘무등현대미술관 10년을 읽다’와 2부 ‘씨와 날의 기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펼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폐교들 깨어나다

- 공연 아지트 작은 박물관 등 폐교들의 행복한 변신
- 아버지 뜻 이어 폐교에 피운 예술꽃, 고흥 남포미술관
- 정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마련

기획- 사진으로 되돌아본 2018평창동계올림픽
하나된 열정, 눈처럼 빛났다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서점의 안목과 단골들의 리뷰로 성장한 영국 독립서점 돈트북스

노중훈의 꿈의 여행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내다 프랑스 프랑방스

예감이 만난 이 사람
파리생활 후 광주 활동 시작한 패션디자이너 황미나
고교, 군대, 프랑까지 함께 KIA철전 임기영, 김운동

예향 초대석

광주시향상임지휘자 김홍재

“지휘는 감동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

기획-광주블리 다시보기(3)
푸른길 갤러리

패션의 생태-문화적 부활 촉매 역할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5)
문학으로 시대의 아픔 겨는 저항시인의 자취
조태일시문학관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진실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간 카메라, 카파, vs. 닥트웨이

트렌드 따라잡기
성공 요인 배워 도약의 시간 열자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한국의 국가여행(1)

관광지로 사랑받는 동해안권 국가여행들

새봄 이야기
'인도어 가드닝'으로 반려식물과 함께 싱그러움맞이

우주의 신비 활짝 열린 고흥,高興
맑게 깨어난 감성 체험